

영적 성장

소기범 목사 저

Spiritual Growth



GROWING
FAITH
RESOURCES

2022
가정공동체 말씀 [참가자용]

초판인쇄 · 2021년 5월 17일

초판발행 · 2021년 5월 24일

편집인·박선규

글쓴이·박선규

발행처 · Growing Faith Resources

주문처· 박선규 목사(Rev. Sunkyoo Park) 502-569-5484

양윤경 간사(Yun Yang) 502-569-5478

email · spark@presbypub.com

ykyoungyang@presbypub.com

이 책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승인 없이는 복사나 녹음을 하거나, 혹은 정보 보관
이나 검색 기능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하
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주소나 온라인을 통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Growing Faith Resources,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
www.ppcbooks.com



머리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소, 운동, 휴식, 수면과 같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균형이 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 지식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종류들과 병약한 사람들은 점점 더욱 늘어나고 있어서 병원은 언제나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올 해 ‘가정 공동체’ 교재 주제는 ‘영적 성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영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영이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 생활을 오래 동안 해 온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영적 성장에 대해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즉, 영적 성장



에 대한 기본 지식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에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혹은 퇴보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지금 당신이 이 교재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교재에 나와있는 영적 성장의 원리들을 잘 배우고, 배운 지식을 꼭 실천해 보세요. 영적 성장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 해 이 교재와 더불어 한인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를 집필하시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 주신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 소기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박선규 목사





차 례

편집자 박선규 목사

집필자 소기범 목사(은혜와사랑교회)

1월 영적 성장	4
2월 하나님 만나기	9
3월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 1 — 기도	14
4월 십자가의 능력	19
5월 내면 세계 가꾸기	24
6월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 2 — 말씀	29
7월 영적 침체	33
8월 고난과 영적 성장	38
9월 성령과 그리스도인	43
10월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 3 — 봉사	48
11월 감사의 영성	52
12월 신앙공동체가꾸기	57



영적 성장

성경 본문	에베소서 4 : 13~16
요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 : 13).
찬송	430장(통 456장, 주와 같이 갈 가는 것)
이과의 목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 성장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을 하며 살기로 결단한다.



1. 생각하기

1. 지금까지 받아 본 선물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으며, 왜 그것이 기억에 남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가 1-10사이 중 어느 수준(1은 최저의 상태, 10은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II. 생각 넓히기

1.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제자입니까>라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담을 소개합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교인이 200명이었던 교회를 600명으로 성장시켰고, 그것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목회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



었습니다. 그렇게 우쭐해진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교인이 200명에서 600명이 되었다고 기뻐하느냐? 기뻐할 것 없다. 너는 그저 삶이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란다. 전에는 네가 200명의 영적인 갓난 아기들을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뿐이지.”

신앙 생활의 연수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과 정성어린 돌봄을 받으면서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 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아이와 같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 : 13).

2. 영적 성장에서 경험하는 은혜

영적 성장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요 14 : 27),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며(요 15 : 11),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지를 발견하게 됩니다(행 22 : 10).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사 43 : 21).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회심을 다룬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한 기쁨과 자유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신론자였던 루이스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도전하시지만, 루이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루이스가 깨닫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루이스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이스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동안 그분께 돌아올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또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초대 앞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나님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라는 말로 마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삶의 문제, 두려움과 절망, 미움과 욕심, 뿌리 깊은 불안과 공허함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삶이 안정되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참 자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자아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는 자아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3. 영적 성장의 의미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스미스는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라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예배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조희선 시인은 <주일 예배당>이라는 시에서 예배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것을 꼬집습니다. “여기 빈 자리/참 부산하게 앉았다들 떠난 자리/당신은/침묵으로/고요로 이제야 임하십니다/신을 벗어나야 할 자리/그러나 모두들 바빠서/입은 옷들 그대로 잠시 머물다 가버린 자리/이렇게 당신의 주일은/참 쓸쓸합니다.” 모두들 바빠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기는 커녕 입은 옷들 그대로 잠시 머물다가 가버리니 어떻게 하나



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모두가 가버린 예배당의 빈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요히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둘째,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만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해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재욱 목사님은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집사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샀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 빵집의 빵이 유독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집사님의 별명은 ‘대포 집사’였습니다. 기도할 때 대포 소리가 나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목사님을 찾아와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요.” 이 말에 목사님은 “집사님, 앞으로 기도 소리는 줄이고 빵 크기를 늘려보세요”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것, 즉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셋째, 영적 성장의 의미에는 훈련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한 순간에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한 순간에 바꾸어 놓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경험한 특별한 은혜 체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성숙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가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했다가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신앙훈련을 해나갈 때에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III. 생각을 삶으로

1.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신 안에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 자신을 변하게 했는지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고, 다음 모임 때까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